

현대식음공간에 나타난 초가와 너와집의 전통성표현특성 연구

A Study on the Expression Characteristics of Korean Traditionality in Restaurants & Cafes which Adopted Thatched Roof & Shingle Roofed House

Author 이아영 LEE, Ah-Young / 정회원, 경희대학교 주거환경학과 석사과정
오혜경 Oh, Hye-Kyung / 참여이사, 경희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expression characteristics of korean traditionality in restaurants & Ccfes which adapted thatched roof & shingle-roofed house. As a method of this study, a case study was made to investigate for exterior and interior elements(roof type, facade, floor, wall, ceiling, door & window) of 12 restaurants & cafes in Seoul and Kyunggi Province from June 10, 2013 to December 1, 2013.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raditional transformation was mostly used among the traditional expression methods. But, there was not many traditional reinterpretation method. Second, looking at each component, traditional reproduction method mostly used for roof, column and ceiling to emphasize facade. Traditional transformation method can be divided into 3 ways in detail. The first method is mixing materials of modern and traditional, and the second one is transforming traditional material and combining this with modern one. The third is removing traditional material completely and transforming totally into modern materials. Third, traditional high quality noble houses are found in luxurious Korean restaurants and luxurious cafes while common houses are found in local food restaurant and cafes. It is because traditional common houses are still considered as low quality of design and it may prevent common houses from becoming high quality of design.

Keywords 전통성, 공간구성요소, 초가집, 너와집, 식음공간
Traditionality, Spatial components, Thatched roof house, Shingle-roofed house, Restaurants & Cafes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세계의 각국은 21세기 이후 개방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문화의 전통성 상실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으나 그 반대급부로 전통성을 살리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났고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자국의 고유 가치를 발굴하여 정체성이 담긴 경쟁력있는 문화 콘텐츠 사업을 전개하게 되었다.¹⁾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건축계에서는 전통성을 새롭게 해석한 건물이 등장하였고 실내디자인계에서도 전통적 요소와 현대적 디자인의 융합이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학계에서도 전통 공간디자인을 주제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반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

고²⁾ 전통 민가³⁾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며 그 중에서도 공간디자인 관련 연구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전통 민가는 당시 대다수의 기층민인 서민들의 주거공간이어서 숫자로 볼 때 과거 우리나라의 대표적 주거유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민가는 규모가 작고 디자인적 규범이 부족해 연구에서 제외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전통 민가에 대한 연구는 지리학적 측면의 연구가 가장 깊게 되어 있고, 건축학적 측면의 연구는 지역별 유형분류에 치중된 것으로 역시 지리학적 범주를 벗어날 수 없으며⁴⁾ 그나마 실내공간 측면의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어⁵⁾ 민가 공간에 대한 연구가 필요

1) 오혜경·이지현, 레스토랑에 나타난 실내공간과 음식관련요소의 한국성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6권 2호, 2007, P.191
2) 윤원태, 전통민가의 주거생활사 연구, 민속원, 2009, p.13
3) 민가는 일반 서민들의 집으로 양반계층의 주택은 좁은 의미의 민가와 구별되어야 한다. 주남철, 한국의 전통민가, 아르케, 1999, p.20
4) 강영환, 민가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건축역사학회 창립10주년 기념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001,6 pp.17-29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ohk@khu.ac.kr

함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전통 민가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초가와 너와집의 각 공간구성요소가 현대 식음공간에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현황을 분석하여 전통성 표현의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민가를 표방한 공간을 디자인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조사대상 범위는 서울, 경기지역에서 식, 음료를 판매하는 공간 중 초가, 셋집, 너와집, 굴피집의 지붕형태를 가진 공간으로 한정하였다. 그 이유는 지붕이 없이 건물 내에 부족되어 있는 많은 식음공간들은 민가인지 반가인지 그 구별이 쉽지 않기 때문이었다. 또 민가를 표방하였지만 위에 열거한 전통 지붕형식이 아닌 공간도 다수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들 또한 소속이 정확치 않았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한편 각 식음공간 구성요소의 현장조사 범위는 외부공간구성요소에서 지붕, 벽체, 기둥, 창과 문의 형태, 재료 및 외부공간구성요소에서 바닥, 벽, 천장, 가구, 조명 장식품의 형태, 재료로 그 범위를 설정하였다.

(2) 연구의 방법

1) 조사대상의 선정방법

조사대상 식음공간을 선정하는 방법은 1차 조사로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키워드로 검색하여 서울 및 경기도에서 민가를 표방한 식음공간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고 홈페이지 및 블로그와 사진검색을 통해 민가의 지붕형태와 공간형식이라고 판단되는 14곳을 추출하였다. 이를 다시 검토하였더니 굴피집은 없었고 주로 초가와 너와집이었다. 이 중 사진촬영을 거부한 2곳을 제외하고 12곳을 선정하였는데 초가 6곳과 너와집 6곳이었다. 한편 본 연구는 전통주택의 현대적 적용 특성을 찾는 연구이므로 그 규모, 위치, 건립년대 등까지는 조사하지 않았다.

<표 1> 조사대상의 선정

번호	종류	상호	주소
1	초가	강변연가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311
2		목향원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2335-3
3		봉주르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165-1
4		시골밥상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471-2
5		성곡미술관 카페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01
6		원조초가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64-18
7	너와집	고향집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덕촌리 144-3
8		논두렁 발두렁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장외리 334
9		마당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덕촌리 112-6
10		물레방아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송골리 35-1
11		뽕나무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하갈리 569-5
12		술너와집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808-2

2) 조사의 방법 및 분석기준

5) 오혜경, 전통 초가의 현대적 적용 사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000, pp.137-149

조사는 2013년 06월 10일~2013년 12월 1일까지 본 연구자가 선정된 식음공간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과 방법은 외부와 내부 공간구성요소(외부: 지붕, 벽체, 기둥, 창과 문. 내부: 바닥, 벽, 천장, 가구, 조명, 장식품) 각각의 형태와 재료, 색채를 작성해 간 조사표에 기입하고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종합하여 실내디자인 관련교수 1인과 함께 내용을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본 연구의 목적이 전통 민가의 공간구성요소가 현대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므로 각 구성요소의 전통성 표현방법을 찾아내고 그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분석해야 한다. 따라서 전통성 표현방법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가장 많은 분류 방법⁶⁾은 전통 재현방법, 전통 변형방법, 전통 재해석방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 세 가지 방법을 기준으로 하고 분석에 들어갔다. 그러나 분석을 진행함에 따라 애매하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나타났고 이를 모두 모아 변형의 정도 및 공통점을 추출하여 각 구성요소마다 다시 분석의 기준을 설정<표 2>하고 재분석하였다.

<표 2> 표현방법에 따른 분석 기준

표현	분석기준
재현방법	전통 공간구성요소(지붕 벽체 문, 창문, 기둥, 벽, 바닥, 천장, 가구, 조명, 장식품) 그대로 사용
	지붕 원형 유지하되 빗물받이용 판넬 설치, 지붕에 슬레이트나 비닐을 덮고 그 위에 짚이나 너와를 얹어 원형 유지, 2층집이라도 지붕은 원형 유지
변형방법	지붕 전통지붕 변형이나 형태 혼용, 전통지붕재료외의 재료사용, 서까래 형태나 마감변형/ 현대재료와 절충
	천장 전통천장 변형, 전통천장 이외 천장형태에 전통재료사용, 종이반자에 일반벽지 사용
	바닥 장판이나 마루무늬 비닐계 재료 사용
	벽 현대재료 사용(일반벽지 사용 등) 전통재료를 장식으로 덧대어 사용, 전통과 현대재료 혼용
	창/문 전통 창살 변형, 전통과 현대 창/문 이중 사용, 창호지대신 유리사용
	가구 전통 가구 형태 및 옹도의 변형, 자연(전통)재료 그대로 가구 활용, 전통공간구성요소를 가구로 활용
	조명 전통조명의 형태변형, 전통재료 사용한 조명, 전통공간구성요소를 조명으로 활용
장식품 전통 재료로 재구성한 장식품, 전통재료와 현대재료를 혼용한 장식품	
재해석방법	추상화 방법으로 재해석하여 표현
	원형을 상징적 또는 은유적으로 표현
	원형을 바로 짐작할 수 없는 표현

2. 전통 민가의 공간구성요소

2.1. 외부 공간구성요소

(1) 지붕

전통 민가의 지붕은 재료와 형태에 따라 분류된다. 재료는 초가지붕, 셋집지붕, 굴피지붕, 너와지붕으로 나누어진다. 서민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⁷⁾ 초가지붕은 서

6) 이지현 오혜경, 앞의 책, p.193

7) 주남철, 한국의 전통민가, 아르케, 1999, p.90

까래를 올린 뒤 진흙을 발라 벽체를 만들고 그 위에 벗짚 이엉을 올린다⁸⁾. 이엉은 비늘이엉법<그림 1>과 사슬이엉법<그림 2>이 있다. 비늘이엉은 짚의 뿌리 쪽을 밖으로 내어 엮는 방법이고, 사슬이엉은 뿌리 쪽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엮어 지붕 표면이 매끈하며 초가에서 흔히 쓰인 방법이다. 이엉을 엮고 나면 고삿매기를 한다. 고삿매기는 일자매기와 마름모매기로 나뉜다. 일자매기는 긴 네모꼴로 매는 방법으로 중, 남부지방에서, 마름모매기는 서부지방에서 주로 쓰인다.⁹⁾



<그림 1> 비늘이엉 초가지붕



<그림 2> 사슬이엉 초가지붕

삿집지붕<그림 3>은 역세풀이나 야생풀 지붕으로 풀이 역세어서 마감은 초가보다 성글다. 또 마르면 바스라져 이엉을 엮을 수 없어 덧덧었는데, 이때 물매가 뜨면 빗물이 스며들기 쉬워 초가보다 물매를 더 급하게 올렸다. 너와지붕<그림 4>은 소나무를 길이 30~45cm로 토막을 낸 뒤 두께 3~4cm 너비 20~25cm로 쪼개어 만든다. 초가지붕은 보온을 위해 진사라는 흙을 깔지만, 너와 지붕은 바로 너와를 잇는다. 다 깔면 돌이나 너스레라는 통나무를 엮고 지붕에 묶어 바람에 날려가지 않게 한다. 굴피지붕<그림 5>은 참나무껍질인 굴피를 쌓은 다음 돌로 누른 것으로 안쪽에 여러 커의 해면질 코르크가 있어 물이 새지 않고 보온과 흡음, 밀폐에 효과적이다.¹⁰⁾



<그림 3> 삿집지붕



<그림 4> 너와지붕



<그림 5> 굴피지붕

형태는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상투지붕으로 나눌 수 있다.¹¹⁾ 맞배지붕<그림 6>은 지붕면이 양면으로 경사를 이루고 우진각지붕<그림 7>은 앞뒷면은 사다리꼴이고 양 측면은 삼각형이 되며 용마루는 맞배지붕보다 짧다. 상투지붕<그림 8>은 용마루를 거꾸로 잡아매어 상투를 뜬 모양으로 헛간채, 뒷간, 잣간 등에서 볼 수 있다.¹²⁾



<그림 6> 맞배지붕



<그림 7> 우진각지붕



<그림 8> 상투지붕

(2) 벽체

벽체의 재료는 자연재료인 흙과 나무와 돌이었다. 우리나라에는 벗짚을 넣은 진흙벽인 담벽<그림 9>이 많았다¹³⁾. 그러나 돌이 많은 지역은 돌벽<그림 10>, 나무가 흔한 지역은 통나무 양 끝을 엇물리게 만든 귀틀벽<그림 11>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벽의 구성을 보면 반가의 벽<그림 12>은 기둥과 기둥 사이에 창을 두고 기둥의 아래쪽에 하인방, 기둥허리와 기둥머리에 상인방을 보내어 인방과 인방사이를 회반죽으로 마감하였다. 민가의 벽면<그림 13>도 이러한 구성방법이지만 간혹 인방을 생략하고 문만 설치한 경우도 있다.



<그림 9> 담벽



<그림 10> 돌벽



<그림 11> 귀틀벽



<그림 12> 반가 벽구성



<그림 13> 민가 벽구성

(3) 기둥

기둥은 치목한 형태에 따라 모기둥과 두리기둥으로 나뉜다. 모기둥<그림 14 a>은 각이 지게 치목한 기둥으로 민가에서도 나타나지만 주로 반가에서 쓰인 기둥 형태이다. 두리기둥<그림 14 b>은 둥글게 다듬은 것과는 자연 그대로 생긴 통나무를 꺾질만 벗겨내고 대강 다듬은 것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가 민가에 많이 쓰였다.¹⁴⁾



a) 모기둥



b) 두리기둥

<그림 14> 민가의 기둥

8) 이용환, 옛집기행, 웅진씽크빅, 2005, p.30

9) 윤원태, 한국의 전통 초가, 재원, 1998, p.45-47

10) 이용환, 앞의 책, pp.44~45

11) 김광연, 한국의 주거민속지, 민음사, 1988, p.119

12) 윤원태, 앞의 책, p.45

13) 신영훈, 한국의 살림집, 열화당, 1983, p.298

14) 조성기, 한국의 민가, 한울아카데미, 2006, p.451

(4) 문과 창

반가의 대문은 가마의 높이를 고려해 기와를 올린 솥을 대문이다.¹⁵⁾ 반면 민가의 대문은 뗏가지나 싸릿가지를 엮어 만든 사립문<그림 15>이 대부분이다.¹⁶⁾ 또한 부엌과 광에는 판장문<그림 16>이 많다.¹⁷⁾ 창은 단순한 띠살문이나 용자살<그림 17>, 정자살<그림 18>이 대부분이다.



<그림 15> 사립문 <그림 16> 판장문 <그림 17> 용자살 <그림 18> 정자살

2.2. 내부 공간구성요소

(1) 바닥

전통주택의 바닥<그림 19>은 온돌과 마루가 중심으로 반가에서는 온돌에 장판지나 천마감을 하였으나 민가는 맨바닥을 다지거나 깔개 또는 멍석을 깔았다¹⁸⁾. 마루는 널판을 나란히 붙여 간 장마루와 장귀틀 및 둥귀틀의 조합인 우물마루로 반가와 민가 모두에 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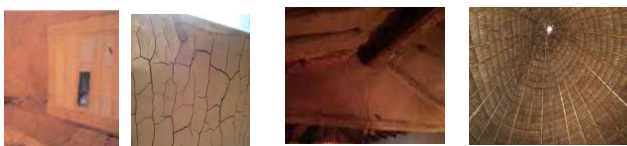


a) 흙바닥 b) 멍석 c) 장마루 d) 우물마루

<그림 19> 바닥

(2) 벽

반가의 실내 벽은 종이나 천으로 마감하였고 비단을 바르기도 하였다.¹⁹⁾ 그러나 민가 벽은 토벽<그림 20>을 실내에서도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다. 다만 흙을 덧발라 평평하게 다져 마감하는 정도로 마무리 하였다.



<그림 20> 토벽 b) 삿갓천장 a) 연등천장

<그림 21> 천장

(3) 천장

천장은 구성에 따라 연등천장, 반자천장, 삿갓천장으로 나뉜다. 연등천장은 주로 대청마루에 사용되며 반가와 민가

모두에 쓰였다. 반자천장은 종이반자가 주이며 삿갓천장은 서까래를 따라 경사진 천장이다. 천장의 서까래 사이는 흙을 채우는 앙토마감과 널판을 덮는 횡개판 마감이 있다.

(4) 가구

반가의 가구는 안방과 사랑방이 구분되어 사용된 가구가 다르지만 민가는 사랑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안방가구는 크게 장(藏), 농(籠), 반닫이가 있다. 장은 각 층이 분리되지 않으며 농<그림 22 a, b, c>은 각 층이 분리되는 형태로 이층농, 삼층농 등이 있다.²⁰⁾ 반닫이<그림 22 d, e>는 서민층에서 장이나 농을 대신하여 의복수납용 가구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a) 단층장 b) 이층장 c) 삼층장 d) 농 e) 반닫이

<그림 22> 안방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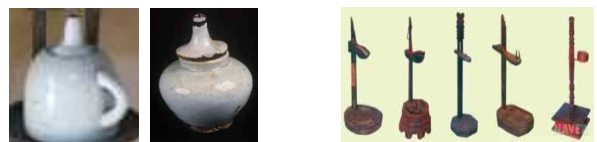
부엌가구에는 찬탁<그림 23>, 찬장<그림 24>, 뒤주<그림 25>, 소반<그림 26> 등이 있다. 찬탁과 찬장은 그릇을, 뒤주는 곡물을 보관하였다. 소반은 상을 차려 방으로 날라야 했기 때문에 용도에 맞추어 여러 종류의 소반이 발달되었는데 민가에서는 주로 개다리소반이 사용되었다.



<그림 23> 찬탁 <그림 24> 찬장 <그림 25>뒤주 <그림 26> 개다리소반

(5) 조명

서민의 조명 기구는 등유를 사용하는 등잔<그림 27>이 가난한 사람들이 늘 사용하던 술잔이나 종지로 간단히 대용할 수 있어 보편적으로 쓰였고²¹⁾ 등경<그림 28>도 사용되었다.



<그림 27> 등잔

<그림 28> 등경

3. 현대 식음공간에 나타난 초가와 너와집의 전통성 표현 특성

3.1. 전통성 표현 분석 결과

20) 문선옥, 가구용어연구2, 한국가구학회지 제20권 2호, 2009, p.144

21) 한옥공간연구회, 앞의 책, p.163

15) 신영훈, 한국의 살림집, 열화당, 1983, p.382
 16) 이용한, 앞의 책, p.65
 17) 한옥공간연구회, 한옥의 공간문화, 교문사, 2004, p.131
 18) 조성기, 앞의 책, p.24
 19) 신영훈, 앞의 책, p.417

<표 3> 사례 분석표 (●:재현 ○:변형 □:현대)

번호	이미지 및 표현방법	외부구성요소				내부구성요소			
		지붕	벽체	기둥	창 / 문	바닥	내벽	천장	가구/ 조명 / 장식품
초가	1					<input type="checkbox"/> 바닥: 사각무늬 리놀리움 ●벽: 토벽 ●천장: 연등천장+양토 <input type="checkbox"/> 가구: 목재 테이블과 의자, 창호지문의 파티션 ○조명: 나무살을 엮어 한지로 마감한 등롱 변형. ●장식품: 글귀를 쓴 한지 장식, 절구통 그대로 진열			
	2					<input type="checkbox"/> 바닥: 흙바닥 ●벽: 토벽 ●천장: 연등천장+양토 ○가구: 목재 좌식테이블과 나무판+나뭇가지 2인용 의자 ○조명: 벗짚, 나뭇가지, 대나무, 한지 등 전통재료를 이용한 조명.●장식품: 지게, 키, 곡식류 등 전통 소품 그대로 진열			
	3					<input type="checkbox"/> 바닥: 쪽마루와 장판지 혼용 ●벽: 토벽과 한지 혼용 ●천장: 연등천장+양토 ○가구: 목재 좌식테이블과 입식테이블 혼용, 나무 스톨 ○조명: 나무살을 엮은 조명, 나무살와 한지스탠드형 좌등. ●장식품: 풍속화나 한자 글귀의 액자 진열			
	4					<input type="checkbox"/> 바닥: 장판지 ○벽: 중간에 세워진 간이벽에 흙, 벽지, 대나무 사용 ●천장: 발, 벽지 이용한 마감 ●가구: 좌식 교자상 ○조명: 등잔램프와 형광등 혼용. ●장식품: 곡식류, 키, 삿갓 등 전통 소품 그대로 진열			
	5					<input type="checkbox"/> 바닥: 흙바닥 ○벽: 창으로 전환 ●천장: 황계판 마감 위 서까래가 지나가는 연등천장 연상 구조 <input type="checkbox"/> 가구: 원형 티 테이블과 현대식 플라스틱 의자 <input type="checkbox"/> 조명: 현대조명기구, ●장식품: 책,그림, 미니어저 등 현대소품 진열			
	6					<input type="checkbox"/> 바닥: 사각 타일 ○벽: 흙, 나무, 벗짚, 나무단면 등 혼용 ●천장: 연등천장 + MDF 널판 + 흙 덧바름 <input type="checkbox"/> 가구: 목재 좌식테이블(사각과 원), 다양한 의자 혼용 <input type="checkbox"/> 조명: 현대조명기구. ●장식품: 벽면에 벗짚을 이용해 미니 초가지붕 장식			
너와집	7					<input type="checkbox"/> 바닥: 장마루 문양 장판지 ●벽: 토벽과 한지 혼용 ●천장: 연등천장+황계판 ○가구: 목재 좌식 테이블 , 락살문 파티션 ○조명: 나무살 엮은 한지 등롱 변형 + 목재문틀 조명. 장식품:없음			
	8					<input type="checkbox"/> 바닥: 장마루 ●벽: 토벽 ●천장: 연등천장+MDF 널판 위 흙 덧바름 <input type="checkbox"/> 가구: 입식과 좌식테이블 혼용, 현대적 색감의 소파 사용, 사방탁자, 삼층장, 도자기와 박 등의 소품 ○조명: 한지와 종이 조명, 창살문양 등롱 ●장식품: 도자기, 나막신, 뒤편박, 하회탈, 삿갓 등의 전통 소품 그대로 진열			

번호	이미지 및 표현방법	외부구성요소				내부구성요소				
		지붕	벽체	기둥	창 / 문	바닥	내벽	천장	가구 / 조명 / 장식품	
9	관련 이미지									
	전통성 표현 방법	●지붕: 맞배, 너와지붕, 비늘모양엃기, 원형서까래, 양토 ●벽: 흙+시멘트 혼용, 석재 덧댄 장식 ●기둥: 두리기둥 ●창/문: 정자살 창호지문과 유리창 / 유리+목재 여닫이문				●바닥: 우물마루 ●벽: 흙+시멘트 위 흙을 덧발라 마감 ●천장: 연등천장+양토마감 ●가구: 여러 형태 입식테이블과 의자 혼용, 반닫이, 목재문을 파티션 활용 ●조명: 나뭇대와 한지를 이용한 좌등의 변형, 창살문양 등용. ●장식품: 짚을 엮어 만든 물고기 모양의 소품, 천장의 휘장 장식				
10	관련 이미지									
	전통성 표현 방법	●지붕: 맞배+우진각혼용 너와지붕, 비늘모양엃기, 원형서까래, 양토 ●벽: 토벽 ●기둥: 두리기둥 ●창/문: 전통살변형+유리혼용/ 판장문				●바닥: 장마루 문양 장판지 ●벽: 시멘트+흙색 페인트 위 벽화 ●천장: 연등천장+MDF 널 판 ●가구: 목재 좌식테이블, 찬장 ●조명: 나무살 엮은 조명, 한지와 나뭇가지 조명. ●장식품: 나무 현판, 곡식류, 농기계류 소품 진열				
11	관련 이미지									
	전통성 표현 방법	●지붕: 맞배+우진각혼용너와지붕, 비늘모양엃기, 원형서까래, 황개관 ●벽: 토벽+진흙 ●기둥: 두리기둥 ●창/문: 유리통창 판장문 장식, 너와 지붕 장식 / 판장문과 유리문의 이중구조				●바닥: 장마루문양 리놀리움 ●벽: 토벽 + 나무 단면 장식 ●천장: 연등천장 변형 ●가구: 목재 좌식과 입식테이블 혼용, 락살문양 파티션 ●조명: 나무 살 엮은 조명 ●장식품: 명석, 메주, 뒤옹박, 곡식류, 따리 등 전통 소품 그대로 진열				
12	관련 이미지									
	전통성 표현 방법	●지붕: 우진각지붕 변형, 너와지붕, 비늘모양엃기, 사각서까래, 양토 ●벽: 토벽위 벽돌문양 장식 ●기둥: 모기둥 ●창/문: 사시 유리통창과 락살창 혼용/ 통유리문과 정자살미닫이문				●바닥: 쪽마루문양 리놀리움 ●벽: 토벽마감 위 벽돌문양 장식 ●천장: 연등천장과 눈썹천장, 목재 널판, 각진 서까래 ●가구: 목재 좌식테이블, 이층 장, 메주 소품 ●조명: 나무 살 엮은 조명, 나뭇대와 한지의 메주모양 조명. ●장식품: 곡식류, 메주 미니어저 등 전통 소품 진열				

3.2. 공간구성요소별 전통성 표현 특성 분석

조사대상공간으로 선정된 12곳의 식음공간은 카페와 육류전문점을 제외하면 모두 전통음식을 판매하는 공간이었다. 이들은 전통민가를 표방하여 근래에 건축된 공간이었고 일제시대나 1950~60년대에 지어진 건물²²⁾은 없었다. 이들의 전통성 표현방법을 보면 전통 재현은 기둥에서 모두 재현되었고, 다음은 지붕으로 조사대상 선정이 초가와 너와집이어서 재현이 당연할 수 있으나 4사례는 변형이 가해져 전통재현으로만 표현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나머지 구성요소에서는 전통 변형이 우세하였는데 일부 재현방법을 제외하면 창, 내벽은 대부분 변형방법이었다. 또 일부 현대조명을 제외하면 이 또한 변형방법이 우세하였고 문과 외부벽, 가구에도 변형방법이 우세하였으나 천장은 재현과 변형이 같은 수였다. 한편 바닥, 가구, 조명에는 현대적 형태나 재료가 일부 적용되어 있었고 전통 재해석방법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들은 전통민가를 표방하여 근래에 건축된 공간이었고 일제시대나 1950~60년대에 지어진 건물²³⁾은 없었다. 이들의 전통성 표현방법을 보면 전통 재현은 기둥에서 모

두 재현되었고, 다음은 지붕으로 조사대상 선정이 초가와 너와집이어서 재현이 당연할 수 있으나 4사례는 변형이 가해져 전통재현으로만 표현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나머지 구성요소에서는 전통 변형이 우세하였는데 일부 재현방법을 제외하면 창, 내벽은 대부분 변형방법이었다. 또 일부 현대조명을 제외하면 이 또한 변형방법이 우세하였고 문과 외부벽, 가구에도 변형방법이 우세하였으나 천장은 재현과 변형이 같은 수였다. 한편 바닥, 가구, 조명에는 현대적 형태나 재료가 일부 적용되어 있었고 전통 재해석방법은 찾아볼 수 없었다.

<표 4> 공간구성요소별 전통성 표현방법 (●:재현 ○:변형 □:현대)

사례	전통성 표현방법										
	외부					내부					
	지붕	벽체	기둥	창	문	바닥	내벽	천장	가구	조명	장식품
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4	●	○	●	○	○	○	○	○	○	○	●
5	○	○	●	○	○	□	○	○	□	□	□
6	●	○	●	○	○	□	○	○	□	□	●
7	●	●	●	●	○	○	○	○	○	○	-
8	●	●	●	○	○	●	●	●	□	○	○
9	●	○	●	○	○	●	○	●	○	○	○
10	○	●	●	○	○	○	○	○	○	○	○
11	○	○	●	○	○	○	○	○	○	○	○
12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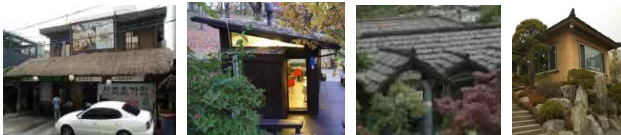
(1) 외부구성요소

22) 초가는 일제시대는 물론 1950년대, 60년대를 거쳐 79년에도 살림집으로 지어진 예가 있다. 오혜경, 앞의 책, p.138

23) 초가는 일제시대는 물론 1950년대, 60년대를 거쳐 79년에도 살림집으로 지어진 예가 있다. 오혜경, 앞의 책, p.138

1) 지붕

지붕은 전통 재현방법 8사례(초가 5사례, 너와집 3사례), 변형방법 4사례(초가 1사례, 너와집 3사례)로 초가가 더 재현방법에 치중하고 있었다. 첫째, 초가는 우진각지붕(사례 1, 2, 3)이나 맞배지붕(사례 4)에 볏짚을 얹어 전통을 충실히 재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자세히 보면 지붕 원형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전통에 없는 빗물받이용 판넬을 설치하였거나, 지붕에 슬레이트나 비닐을 덮고 그 위에 짚이나 너와를 얹어 원형을 유지한 사례도 있었다. 여기에서 한 가지 2층이 나타났는데 그 지붕구조는 원형을 유지(사례 6) <그림 29>하고 있었다. 전통변형은 맞배지붕의 변형으로 앞에서 보면 맞배지붕이나 옆에서 보면 맞배지붕을 반으로 자른 형태로 판넬 위에 볏짚을 얹은 지붕(사례5) <그림 30>이었다. 이영을 엮은 방식은 모두 사슬이영이었고 고삿매기 방식은 일자매기 5사례, 마름모매기 1사례로 모두 전통을 재현하고 있다. 둘째, 너와지붕은 맞배지붕이나 상투지붕에 너와를 비늘모양으로 얹은 재현방법(사례 7, 8, 9)과 맞배지붕과 우진각지붕을 혼용하여 너와를 얹은 변형방법(사례 10, 11) <그림 31>이 있었다. 이는 기본 형태는 우진각지붕이고 입구 쪽으로 맞배지붕의 측면 형태를 덧붙여 지붕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 우진각지붕의 변형으로 기본은 우진각이지만 양 끝이 올라간 형태(사례 12) <그림 32>도 있었다.



<그림 29> <그림 30> <그림 31> <그림 32>

2) 벽체

외부 벽체는 전통 재현방법 5사례, 변형방법 7사례였다. 재현방법은 모두 황토벽 마감(사례 1, 2, 7, 8, 10) <그림 33>이었고 변형방법은 황토벽에 석재를 넣거나 널판지를 덧대는 방법, 그리고 진흙으로 문양을 내어 장식(사례 3, 6, 9, 11, 12) <그림 34, 35>하기도 하였다. 또 벽면 전체를 유리 창문으로 전환한 경우(사례 4, 5) <그림 36>도 있었는데 이때 창문에는 창살 없이 통유리인 경우와 창살이 있는 경우로 나누어졌다. 벽의 구성방법은 상인방과 하인방을 두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창호가 있는 전통 재현방법이 3사례(사례 1, 2, 12) <그림 33, 34>였고 나머지는 인방 없이 유리창을 두고 테두리를 나무로 마감(사례 3, 6, 7, 8, 9, 10, 12) <그림 35>하거나 벽 전체를 창으로 전환 <그림 36>하기도 하였다.



<그림 33> <그림 34> <그림 35> <그림 36>

3) 기둥

기둥은 모두 전통 재현방법이었다. 두리기둥(사례 1, 6, 8, 9, 10, 11)은 대부분 치목하지 않은 목재 그대로 <그림 37>를, 모기둥(사례 2, 4, 5, 7, 12)은 치목한 목재를 사용하였다. 이때 치목하였다고는 하지만 사례 7 <그림 39>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정교하지 않아 전체적으로는 거친 느낌을 주고 있었다. 또한 치목하지 않은 두리기둥과 모기둥을 같이 사용(사례 3) <그림 40>한 예도 있었다.



<그림 37> <그림 38> <그림 39> <그림 40>

4) 창

창은 띠살 창호지문의 전통재현(사례 7)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변형이었다. 변형의 방법을 보면 창호지 대신 유리에 변형된 창살문양 적용(사례 1, 3, 4, 6, 10) <그림 41>이 가장 많았고, 창호지문과 유리창을 이종으로 사용(사례 2, 9) <그림 42>하거나 유리창의 틀을 치목하지 않은 목재로 마감한 경우(사례 8) <그림 43>가 있었다. 또 유리창에 판장문(사례 11)이나 띠살창(사례 12)을 덧댄 경우 <그림 44>도 있었다.



<그림 41> <그림 42> <그림 43> <그림 44>

5) 문

문은 전통 재현방법 4사례, 변형방법 8사례였다. 전통 재현으로는 판장문(사례 1, 8, 10) <그림 45>과 여닫이 띠살문(사례 2) <그림 46>이 있었다. 그 외에는 변형방법이었는데 전통창살을 변형하여 유리와 혼용한 미닫이문(사례 4, 6, 7) <그림 47>이 가장 많았고, 통유리 여닫이문(사례 5, 9) <그림 48>, 판장문과 유리여닫이문을 이종으로 사용한 경우(사례 11) <그림 49>도 있었다.



<그림 45> <그림 46> <그림 47> <그림 48> <그림 49>

(2) 내부구성요소

1) 바닥

바닥은 전통 재현방법 3사례, 변형방법 8사례였다. 재현은 흙바닥(사례 2)<그림 50>과 우물마루(사례 8, 9)<그림 51>였다. 변형은 장마루 문양의 리놀리움(사례 4, 7, 10, 11)<그림 52>이 가장 많았고 목재 장마루와 장판지의 혼용(사례 3)도 있었다. 한편 바닥에는 현대재료인 타일마감이 나타났는데 마름모형태(사례 5)<그림 53>와 사각(사례 6), 또 사각무늬의 리놀리움(사례 1)<그림 54>이었다.



<그림 50> <그림 51> <그림 52> <그림 53> <그림 54>

2) 내벽

내벽은 전통 재현방법 5사례, 변형방법 7사례였다. 재현방법은 외벽과 동일한 토벽마감(사례 1, 2, 8)<그림 55>과 토벽과 한지를 혼용한 경우(사례 3, 7)<그림 56>가 있었다. 변형방법은 흙과 시멘트를 섞은 벽 위에 대나무<그림 57>, 통나무의 단면<그림 58>, 벗짚을 덧대거나(사례 4, 6, 9, 11), 토벽 위에 벽화를 삽입한 경우(사례 10)<그림 59>, 또 토벽 마감에 벽돌무늬 장식을 한 경우(사례 12)였다.



<그림 55> <그림 56> <그림 57> <그림 58> <그림 59>

3) 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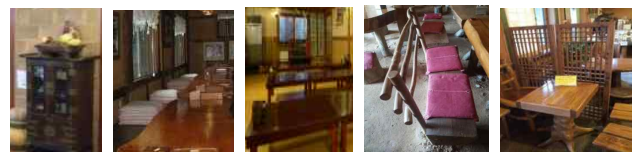
천장은 전통 재현방법 7사례, 변형방법 5사례였다. 전통 재현은 전형적인 연등천장에 양도마감(사례 1, 2, 3, 9)이 가장 많았고 횡개판마감(사례 5, 7)<그림 62>도 있었으며 눈썹천장에 널판마감(사례 12)<그림 63>도 있었다. 변형은 연등천장에 MDF 널판 위 흙을 바른 경우(사례 6, 8), 반자천장에 발과 벽지 마감(사례 4)<그림 64>이 있었고 연등천장의 기울기와 형태를 변형한 경우(사례 11)<그림 65>도 있었다. 그러나 거의 모두 연등천장이었다.



<그림 60> <그림 61> <그림 62> <그림 63>

4)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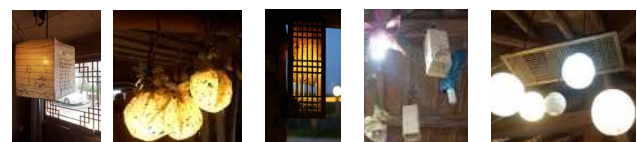
가구는 전통 재현방법 2사례, 변형방법 6사례였다. 전통재현은 반단이나 삼층장<그림 64> 등 전통가구 그대로를 진열(사례 10, 12)한 경우 외에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전통변형은 다리를 접고 펼 수 있게 변형한 교자상(사례 4)<그림 66>이 구조의 변형이었고 나머지는 다듬지 않은 자연재료 사용으로 자른 그대로의 원목 테이블<그림 65>천판이 많았고 또 나뭇가지로 의자등받이를 제작한 경우(사례 2)<그림 67>도 있었다. 목재 좌식과 입식테이블의 혼용(사례 3, 11), 전통장살문의 파티션 활용(사례 1, 7, 9)<그림 68>과 현대가구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사례 1, 5, 6, 8)도 있었다.



<그림 64> <그림 65> <그림 66> <그림 67> <그림 68>

5) 조명

조명은 전통 재현방법은 없었고 현대적 조명기구를 사용한 사례5와 사례6를 제외하면 모두 변형방법이었다. 대나무살로 사각이나 구형의 조명을 제작하거나 여기에 한지 마감(사례 1, 3, 7, 9)<그림 69>, 락살문 적용(사례 8, 9)<그림 70>, 나뭇가지, 짚, 실, 한지 등 전통재료로 재구성(사례 2, 8, 10, 12)<그림 73>하거나 락살문을 천장에 달아 여러개의 펜던트 조명을 묶는 역할로 활용(사례 7)<그림 74>하기도 하였다.



<그림 69> <그림 70> <그림 71> <그림 72>

6) 장식품

장식품은 전통 재현방법 9사례, 변형방법 2사례였고 현대적인 장식품만 사용한 경우(사례 5)와 장식품이 없는 경우(사례 7)도 있었다. 전통 재현은 주로 농기계류(사례 2, 4), 곡식류(사례 2, 4, 11) 글귀(사례 1, 10) 등을 바닥 또는 벽에 진열하였고 변형은 글귀를 유리액자에 넣거나(사례 3)<그림 83> 짚으로 물고기 모양을 만들어 천장에 건 경우(사례 9)<그림 84>였다.

3.3. 소결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외부 공간구성요소에서 첫째, 지붕은 너와지붕에서 약간의 변형이 있으나 비교적 전통을 충실히 재현하고 있다.

둘째, 벽체는 황토벽의 재현보다 황토벽에 자연재료를 첨가하거나 벽면을 유리창으로 전환하기도 하였고 셋째, 기둥은 치목하지 않은 두리기둥과 치목하였으나 정교하지 않은 모기둥으로 재현되고 있었다. 넷째, 창은 변형이 많았는데 대부분 창호지를 현대재료인 유리로 대체하였고 창호지문과 유리창을 이중으로 사용하는 등 전통 창호와 연결되어 있었다. 다섯째, 문 또한 창과 유사하게 유리와 혼용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전통을 바로 인지할 수 있었다. 따라서 초가와 너와집을 표방한 식음공간의 외부 공간구성요소는 지붕, 벽, 창과 문 모든 요소에서 전통을 바로 인지할 수 있었다.

내부 공간구성요소를 보면 첫째, 천장을 제외 한 나머지에서 모두 전통변형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둘째, 바닥은 흙바닥과 우물마루의 재현이 있었지만 장판이나 장마루 문양의 리놀리움이 많았고 현대재료인 타일도 있었다. 셋째, 내벽은 흙벽의 재현이 아니면 변형으로 흙벽아래 또는 중간에 전통과 관련된 재료를 삽입함으로써 외부벽체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넷째, 천장은 연등천장의 재현이 많았고 이 외에는 반자 또는 연등천장의 변형이었다. 다섯째, 가구는 다듬지 않은 원목판이나 나뭇가지 등 재료를 그대로 노출하여 전통과 간접적으로 연결시키거나 전통가구를 그대로 진열하여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었다. 여섯째, 조명은 모두 변형되었는데 전통조명인 등잔이나 등경보다는 형태는 현대에 기반을 두고 전통관련 재료로 재구성하였다. 일곱째, 장식품은 주로 전통 기물을 그대로 진열하고 있었다. 따라서 초가와 너와집을 표방한 식음공간의 내부 공간구성요소도 거의 전통을 바로 인지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4. 결론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위치한 초가와 너와집을 표방한 식음공간의 한국 전통성 표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통해 12사례를 선정한 뒤 방문 조사하여 외부 및 내부 공간구성요소의 각 형태, 재료를 분석하였고 이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분석된 사례들의 전통성 표현특성은 전통재현과 전통 변형이었고 전통재해석은 나타나지 않았다. 전통 재현은 조사대상 선정에서부터 초가와 너와집에 한정했으므로 지붕에 가장 많았고 그 외의 구성요소에도 적지 않아 전통을 비교적 충실히 적용하고 있었다. 가장 많이 나타난 전통 변형은 창과 조명에 특히 많았고 그 외에도 각 구성요소에 상당수 적용되었다. 이의 변형은 전통재료(형태)와 현대재료(형태)의 혼용, 전통형태의 간소화 또는 약간의 변형, 전통 형태와 재료의 변형, 전통공간구성요소의 용도 변경 등 비교적 단순한 변형이어서 초가와

너와집을 표방한 식음공간은 한국 전통 민가 공간디자인의 급격한 변화나 새로운 도전이 적극적으로 시도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아직까지 민가는 서민주택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고급공간을 위한 디자인의 모티브가 되지 못한 이유일 수 있다. 그러나 건강과 웰빙이 대세인 21세기 현대에서, 건강하고 토속적인 재료로 건축된 민가가 수세기 전 조선시대의 전통을 그대로 모방 또는 소극적이거나 왜곡된 변형만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디자인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도 된다. 따라서 전통 민가가 도태되지 않고 반가 디자인과 더불어 발전되기 위해서는 민가 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는 물론 현장에서 현대의 생활양식이나 가치, 그리고 보다 수준 높은 디자인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12곳의 식음공간을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이므로 이의 일반화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이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광언, 한국의 주거민속지, 초판, 민음사, 서울, 1988
2. 박명덕, 한옥, 초판, 살림출판사, 파주, 2005
3. 박영순 외 7인, 우리옛집이야기, 초판, 열화당, 서울, 1998
4. 윤원태, 전통민가의 주거생활사 연구, 초판, 민속원, 서울, 2009
5. 윤원태, 한국의 전통 초가, 초판, 재원, 서울, 1998
6. 이용환, 옛집기행, 웅진씽크빅, 초판, 서울, 2005
7. 조성기, 한국의 민가, 초판, 한울아카데미, 2006
8. 조진환, 한옥 전통에서 현대로, 주택문화사, 2008
9. 주남철, 한국의 전통민가, 초판, 아르케, 서울, 1999
10. 한옥공간연구회, 한옥의 공간문화, 초판, 교문사, 서울, 2004
11. 월간미술, 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서울, 1999
12. 한국민족문화대백과, www.encykorea.aks.ac.kr
13. 김민정, 한국 전통성 표현의 현대적 접근 방법과 공간디자인에의 적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93
14. 박소연, 한국 현대 주거용 가구에 나타난 전통성 표현,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00
15. 오혜경, 전통 초가의 현대적 적용 사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53, 2000
16. 강영환, 민가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건축역사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001
17. 신경화,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작품주택에 나타난 전통성의 현대적 구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2003
18. 전경희·남경숙, 한국 현대 실내공간에서의 전통성 표현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4권 6호, 2005
19. 오혜경·이지현, 레스토랑에 나타난 실내공간과 음식관련요소의 한국성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6권 2호, 2007
20. 문선옥, 가구용어연구 2, 한국가구학회지 제20권 2호, 2009

[논문접수 : 2014. 02. 24]
 [1차 심사 : 2014. 03. 19]
 [2차 심사 : 2014. 03. 28]
 [게재확정 : 2014. 04. 10]